

백담사 경내에서 바라본 수심교의 모습. 안거를 해제한 운수납자들은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다리를 건너 만행에 오른다. 산하가 팔만 사천 법문이고, 바람이 격외도림임을 알아야 한다.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④



"천룡의 손가락 禪 얻고도 일생동안 못써"

第二則: 百丈野狐 (백장과 들여우)

百丈和尚凡參次, 有一老人, 常隨眾聽法, 眾人退老人亦退, 忽一日不退, 師遂問. 面前立者復是何人. 老人云, 諾某甲非人也. 於過去迦葉佛時, 曾住此山. 因學人問,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某甲對云, 不落因果, 五百生墮野狐身. 今請和尚, 代一轉語, 貴脫野狐. 遂問,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師云, 不昧因果. 老人於言下大悟, 作禮云, 某甲已脫野狐身, 住在山後, 敢告和尚, 乞依亡僧事例. 師令維那白槌告眾, 食後送亡僧. 大眾言議, 一眾皆安, 涅槃堂又無人病, 何故如是. 食後只見師領眾, 至山後巖下, 以杖挑出一死野狐, 乃依火葬. 師至晚上堂, 舉前因緣, 黃蘗便問, 古人錯祇對一轉語, 墮五百生野狐身, 轉轉不錯, 合作箇甚麼. 師云, 近前來與伊道. 黃蘗遂近前, 與師一掌. 師拍手笑云, 將謂胡鬚赤, 更有赤鬚胡.

百丈和尚凡參次, 有一老人, 백장이 설법할 때
常隨衆聽法, 항상 대중을 따라 법문을 듣다가
衆人退老人亦退, 대중과 노인이 물러가곤 했다.
忽一日不退,師遂問. 하루는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자 백장 스님께서 물었다.
面前立者復是何人.老人云,
"당신은 도대체 뉘시오?"노인이 말했다.
諾某甲非人也.於過去迦葉佛時,
"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가섭불 시대에
曾住此山.因學人問,大修行底人
이 산서 살았는데 학인이 '크게 수행 한 사람도
還落因果也無.某甲對云,不昧因果.
또한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기에,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 답했기 때문에
五百生墮野狐身. 今請和尚,
5백 생을 여우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代一轉語,貴脫野狐.遂問, "제 대신 한 마디 말씀을 해줘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크게 수행한 사람 곧 깨달음 사람도 또한 인과에 떨어집니까."
師云,不昧因果. 백장스님께서 말했다."인과에 어둡지 않느니라."
老人語言下大悟, 作禮云,
노인은 언하에 크게 깨닫고 절 올리고 말했다.
某甲已脫野狐身,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나
住在山後, 敢告和尚, 송구스럽지만 화상께서는
乞依亡僧事例. 다비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師令維那白搥告衆,
백장스님께서는 유나로 하여금 백추를 쳐서
食後送亡僧. 공양 후에 열반한 스님의 다비식이 있음을 알렸다.
大衆言議,一衆皆安, 모든 대중이 다 평안하고
涅槃堂又無人病,
열반당에도 또한 아픈 사람이 없는데
何故如是. 무슨 까닭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食後只見師領衆,
공양 후에 백장스님께서는 대중을 이끌고
至山後巖下, 산 뒤쪽 바위 아래에 이르러
以杖挑出一死野狐,
지팡이로 한 마리 죽은 들 여우를 끄집어내어
乃依火葬. 화장을 하였다.
師至晚上堂,
백장스님께서 저녁에 상당(上堂)하시어
擧前因然, 앞서의 인연을 이야기하자,
黃蘗便問, 황벽스님이 곧바로 물었다.
古人錯祇對一轉語,
"옛날 분이 한 마디 말씀을 잘못 대답하여
墮五百生野狐身,
오백 생을 여우 몸을 받았는데,
轉轉不錯,合作箇甚麼合. 한 마디 어긋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이 되었을까요?"
백 師云, 近前來與伊道. 백장스님께서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마"
黃蘗遂近前, 황벽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자,
與師一掌. 백장스님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겼다.
師拍手笑云,
백장스님께서는 손뼉을 치며 웃으며 말했다.
將謂胡鬚赤,
"오랑캐(달마)의 수염만 붉다고 여겼는데
更有赤鬚胡. 여기 붉은 수염 달마가 또 있구나!"

【無門曰】 不落因果, 為甚墮野狐, 不昧因果, 為甚脫野狐. 若向者裏著得一隻眼, 便知得前百丈贏得風流五百生.

無門曰 무문은 말한다.
不落因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爲甚墮野狐, 하면 어째서 들 여우 에 떨어지고,
不昧因果,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면
爲甚脫野狐, 어째서 들 여우에서 있었을까?
若向者裏著得一隻眼,
만약 여기에서 외짝 눈을 얻을 수 있다면
便知得前百丈贏得風流五百生.
그 여우 노인(前百丈)이 5백 생 동안
풍류를 즐겼다는 사실을 곧장 알리라.

【頌曰】不落不昧, 兩采一賽. 不昧不落, 千錯萬錯.
頌曰 게송으로 말한다.
不落不昧,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兩采一賽. 한 주사위의 두 가지 무늬일 뿐.
不昧不落,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千錯萬錯, 천 번 틀리고 만 번 어긋난다.

〈해설〉 백장회해(百丈懷海 : 749-814)는 당나라 때의 스님으로 조계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 마조도일의 3대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후백장으로 불리고, 한 노인은 먼 전생의 전백장으로 불린다. 크게 수행해 곧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것은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은 인과를 잘 안다는 것이다. 전백장은 인과의 부정으로 5백 생 여우 몸을 받았고, 후백장은 인과에 대한 분별을 드러낸 까닭으로 전 백장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지만 사량분별에 떨어졌다.

第三則: 俱胝竪指(구지가 손가락을 세우다)

俱胝和尚, 凡有詰問, 唯舉一指. 後有童子, 因外人問, 和尚說何法要, 童子亦豎指頭. 胝聞, 遂以刀斷其指, 童子負痛號哭而去, 胝復召之. 童子迴首, 胝卻豎起指. 童子忽然領悟. 胝將順世, 謂眾曰, 吾得天龍一指頭禪, 一生受用不盡, 言訖示滅.

俱胝和尙,凡有請問,
구지 화상은 누가 무엇을 물어올 때마다.
唯擧一指. 오직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였다.
後有童子, 나중에 구지 화상 처소의 동자에게
因外人問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물었다.
和尙設何法要, "어떤 법을 설하시느냐."
童子亦竪指頭. 동자가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胝聞, 遂以刀斷其指, 구지스님이 이를 듣고 급기야 칼로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童子負痛號哭而去, 동자가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달아나는데,
胝復召之. 童子廻首, 구지스님이 다시 그를 불렀다. 동자가 머리를 돌리자,
胝卻竪起指. 구지스님이 손가락을 보였다.
童子忽然領悟. 이에 동자는 문득 깨달았다.
胝將須世, 謂衆曰, 구지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대중에게 말했다.
吾得天龍一胝頭禪 "내가 천룡의 한 손가락 선을 얻어 일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했다."
一生受用不盡,言訖示滅.
이렇게 말을 마치시고는 입적했다.

〈해설〉 구지는 금화구지(金華俱胝)로서 무주(撫州) 금화산(金華山)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항상 구지관음(俱胝觀音 곧 준제관음)의 주문(呪文)을 암송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천룡(天龍)은 마조도일 -대매법상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계승하였다. 항상 일지(一指)를 들어보였기 때문에 천룡일지선(天龍一指禪)이라 불렸다.

구지화상은 절강성 무주에 있는 금화산에 주석했는데, '나무칠구지불모대준제다라니' 를 평생 지송해 '구지' 라 칭했다. 절강성 무주에 거주하고 계실 때, 어느 날 실제니라는 비구니가 삿갓을 쓰고 찾아와서 구지 스님의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말하였다. "한 마디 하면 삿갓을 벗으리라"

구지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니, 이 비구니 스님은 소매를 뿌리치면서 떠나려 했다. 구지스님께서 말했다. "좀 쉬었다가 가시지요"

실제니 비구니스님이 말했다. "한 마디 한다면 머무르겠소." 구지스님은 또 아무런 말도 못했다. 실제니 비구니스님이 떠난 뒤에 스스로 한탄하며 수치심을 느끼고는 산을 떠나려하였다. 그날 밤에 홀연히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곧 육신보살이 오셔서 그대를 위해 설법해 줄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천룡스님이 왔는데,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날 당한 이야기를 하니, 천룡스님이 말했다.

"나에게 물으라. 내가 대답해주겠다" 구지스님이 물었다. "바로 한 마디 한다면 머무르겠소"

천룡스님이 아무런 말도 없이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이에 구지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그 후로 항상 누가 물으면 한손가락을 세우면서 말했다.

"나는 천룡스님에게 일지두선을 받아서 평생을 쓰고도 다함이 없노라"

【無門曰】俱胝并童子悟處, 不在指頭上. 若向者裏見得, 天龍同俱胝并童子, 與自己一串穿卻.

無門曰, 무문은 말한다.
俱胝並童子悟處, 구지와 동자가 깨달은 곳은
不在指頭上. 손가락 끝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보는 놈은 어디에 있는가.
若向者裏見得, 만약 이 속뜻을 알아차리면
天龍同俱胝並童子, 천룡스님과 구지스님, 동자
與自己一串穿卻. 자신과 하나로 꿸 수 있다

【頌曰】俱胝鈍置老天龍, 利刃單提勘小童. 巨靈抬手無多子, 分破華山千萬重.

頌曰. 게송으로 말한다.
俱胝鈍置老天龍, 구지는 천룡 노스님을 얕보고
利刃單提勘小童. 칼로 동자를 점검했으니,
巨靈擡手無多子, 거령신이 손을 들어
分破華山千萬重. 화산을 천만 겹으로 쪼겠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삼보사 · 육지장사
'禪問答' 특별 대법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육지장사 | 주관 : 서울포교사단, 인천경기 포교사단

<선문답>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서 출현한 선수행의 결과물입니다. 그 누구의 문답도 아닌 바로 자신이 일상에서 제기하고 점검하며 해답을 추구할 마음공부의 방편으로 대선사 초청 '선문답 특별 대법회'를 진행합니다.
<선문답>을 사유해 보는 선법회를 통해 국내외 일반대중들이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인격 완성의 계기로 삼길 발원합니다. 한 예로 수영이나 골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의 레슨을 받으면 실력이 향상되듯, 대선지식의 지도아래 실참(實參)하면 누구나 생각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대선사들의 선기 넘치는 <선문답> 법회에 동참하셔서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9년 '선문답' 대법회 일정 (매일 오전 10시30분)

9월 22일 삼보사
무문관 제①칙 〈趙州狗子〉 해인사 보광 대선사

9월 29일 삼보사
무문관 제②칙 〈百丈野狐〉 통도사 법산 대선사

10월 6일 삼보사
무문관 제③칙 〈俱胝竪指〉 명사초청 특별 대법회

10월 13일 삼보사
무문관 제④칙 〈胡子無鬚〉 지원 前 조계종 포교원장

10월 20일 삼보사
무문관 제⑤칙 〈香嚴上樹〉 상원사 의정 대선사

10월 27일 삼보사
무문관 제⑥칙 〈世尊拈華〉 백담사 영진 대선사

11월 3일 육지장사
무문관 제⑦칙 〈趙州洗鉢〉 석종사 혜국 대선사

삼보사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99-4(육지장사 포교당) | Tel. 02)352-6406
육지장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71번길 190 | Tel. 031)871-0101
www.yukjijangsa.org